

'아직도 제자리걸음' 남자골프, 살수 있는 길은?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와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투어의 현실이다.

2016 시즌 KPGA 투어는 KLPGA 투어와 비교해 대회 수나 상금 규모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여자골프는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남자골프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이다.

매년 몸집을 키워나가는 여자골프와 달리 남자골프는 대회 스폰서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남자골프의 부활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양회부 회장 취임 첫 해인 올해 KPGA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 동안 친근함과 거리가 있었던 남자선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했다. 재능 기부는 물론 나눔을 실천하며 팬들 앞에 성큼 다가갔다.

시즌 2승을 거두며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을 석권한 최진호(32·현대제철), '가을 사나이' 이형준(24·JDX말티스포츠), 예비역으로 돌아온 허인회(29)는 팬클럽을 만들었다.

최진호 팬클럽의 이름은 팬들이 직접 지은 '헤일로(HALO)'다. '최진호라는 슈퍼스타를 감싸고 있는 빛무리'라는 의미를 닮았다.

이형준의 팬클럽 '사랑합니다. 이형준'은 팬들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진다. 이형준은 '카이도코리아 투어 챔피언십' 우승 직후 팬클럽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렸다.

올 시즌 경기장 인광에서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닌 허인회의 팬클럽은 '강하다. 허인회'이다. 개성 넘치는 성격답게 허인회가 직접 팬클럽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

그 동안 KLPGA 대회장에서나 볼 수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문경준(왼쪽)과 팬클럽 가족들과 포토타임을 갖고 있는 이형준(오른쪽).



여자골프에 비해 친근함과 거리가 있어 선수들이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팬들과 소통

최진호·이형준·허인회 등 팬클럽 창단 문경준·이상엽 등은 맞춤형 개인 클리닉 진행

있었던 팬클럽의 응원 목소리가 KPGA에서도 들렸다. 멋진 샷이 나올 때 마다 환호와 박수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실수에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

허인회는 "대회마다 일일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팬 분들께 감사하다"며 "시합 때 정말 큰 힘이 된다. 소중한 분들"이라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선수들도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남다른 팬 서비스를 선보였다. 팬 카페 게시판에 직접 글과 사진을 남긴다. 또 팬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깜짝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또 많은 선수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팬들과 가까이서 교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 문경준(34·휴센)과 '테샛코리아' 만성웨이

매치플레이' 챔피언 이상엽(22)은 팬들을 상대로 원포인트 레슨과 맞춤형 개인 클리닉 등을 진행했다.

'DGB금융그룹 대구경북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문정호(26·파인테크닉스)와 마관우(26·맨인정글)는 팬들과 아우러져 자유롭게 골프를 즐기는 '프리스트아일 골프대회'에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대회장마다 KPGA 선수들과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해 액자로 만들어주는 '해피포토존 이벤트'도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다.

KPGA 투어 선수들은 합계운 여건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 소아 환우 등을 위한 기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매일유업 오픈'에서 출신원을 기록한 최이삭(36·휴센)은 출신원 부상인 '매

일유업 유제품 상품권'을 경북삼성병원 사회 봉사단에 전달했다.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을 우승한 주홍철(35·비스타케이호텔그룹)은 아들과 유사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승 상금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인연을 통해 지난달에는 대한홍부심장혈관외과학회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지난 22일에는 군 복무 중인 배상문(30)이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해 골프채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눔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인 최연소 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김시우(21·CJ대한통운)도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직후 상금 전액을 최경주 재단에 기부하는 등 많은 선수들이 기부에 동참했다.

이형준은 "기부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기부 외에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작은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결그룹 AOA 멤버 초아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JTBC 예능 '싱포유'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연을 노래로 만들어요'

JTBC '싱포유', 내달 3일 첫 방송

기존 가요를 리메이크해서 가장 대결을 벌이는 노래 프로그램이 아닌, 공감을 키워드로 대중가요를 창작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출격한다.

JTBC가 12월 3일 오후 5시 첫 방송하는 '싱포유'다. 가수 홍경민과 문희준, 프로듀서 유재환, 그룹 'AOA' 멤버 초아 등이 나서 격려·고백·이별 등 테마별로 사연을 받고 '공감송'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홍경민·유재환, 문희준·초아가 짝을 이뤄 각자 곡을 만들고 도움을 줄 뮤지션 등을 섭외한 뒤 방청객들의 공감 지수를 얻기 위해 대결을 벌인다. 공감지수를 많이 받은 팀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착한 예능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문희준은 29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싱포유' 제작발표회에서 "우리가 만드는 노래는 '공감송'이에요. 한 사람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연은 한 사람의 것이지만 저희가 가사로 옮긴 내용은 대중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재환은 "라디오가 사연을 읽어준다면, 우리 프로그램은 사연을 노래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보통 대중가요는 사랑에 치중한다. 초아는 하지만 "미리 받아온 사연에는 사랑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보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준은 목표는 크게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보도로 시청률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JTBC '뉴스룸' 숫자를 따라잡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근처에 (최순실 게이트를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블릿 PC가 있나 찾아보는 중"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뉴스

ESPN, "WBC, 내년이 마지막 대회"

내년 3월 열리는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마지막 대회가 될 수도 있다는 미국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9일(한국시간) 여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내년 WBC에서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2017년 WBC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야구 국가대표팀인 WBC는 2006년 초대 대회가 열렸으며 2009년, 2013년에 이어

내년에 4회째를 맞는다.

내년 3월6일 시작되는 WBC는 서울과 일본 도쿄, 미국 마이애미, 멕시코 할리스코에서 예선이 치러진다. 이후 도쿄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준결승이 열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월22일 결승전이 펼쳐진다.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ESPN은 "2013년 WBC에서도 수익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두산 베어스, 통합우승 기념 팬페스트 내달 4일 개최

두산 베어스는 12월4일 잠실구장에서 2016 통합우승 기념 팬페스트를 개최한다. 이날 낮 12시부터 김태형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이 특별 팬사인회를 시작한다. 오후 4시까지 잠실구장 그라운드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KPGA 투어 1부에서는 김태형 감독, 주장 김재호, 한국시리즈 MVP 양의지가 선수단을 대표해서 팬들에게 감사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시리즈 하이라이트 방영, 우승

기 전달식, 사랑의 성금 전달식 및 동호회 시상식이 이어 2017년 신인 및 신임단 선수 소개가 진행된다.

이날 특별히 허경민이 본인의 안타 적립금 160만원을 기부한다. 지난해 최동원상 수상 상금의 절반을 기부한 유희관에게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한다.

행사 2부에서는 선수들과 팬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행사가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